생활말씀 11월

2026년 11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 33)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전반적 상황과 나날이 접하는 소식들이 점점 더 우려스러워지는 현실에서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부족인 상황들에 대한 불안과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성과에 대한 기대감, 이 둘 사이에 갇힌 채 모든 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 줍니다. (요한 복음의 이 대목에서) 사도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형제애와 배신, 자기 증여, 곧 자신을 내어 주는 것과 악의 어둠이 극적으로 교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수난의 시련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일깨워 주십니다. 즉 그들은 ‘세상에서’ 폭풍과 실망에 휩쓸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 안에서 늘 평화와 충만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은 희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외부 상황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두려움과 고통을 불러일으킬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맡기고 의지하라 하십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당신 현존의 표징들을 인식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라고 당부하십니다.

끼아라 루빅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삶에 신비로운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종종 그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침묵 중에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 곁으로 오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까지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신이 몸소 짊어지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고자 고통 자체가 되시어 이렇게 부르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태 27,46) (...) 육신적, 윤리적, 영신적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그분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모든 고통은 곧 그분의 현존이고, 그분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이 고통 안에서 저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통은 저를 찾아오시는 당신이십니다. 저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하시는 당신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세하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분의 은총에 응답해 드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다음 순간에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경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사랑이 기쁨과 빛과 평화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1]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둠의 순간에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선善으로 악惡을 이기시도록 해 드립시다. 마음을 닫아 버리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고, 형제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며,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같은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도록 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살고자 하는 서로 간의 사랑 또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증언하며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다음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년 하비에르가 체험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촌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마당의 담에 올라가 볼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 동안) 담이 무너지면서 저를 덮쳤고 제 오른쪽 다리가 그 잔해에 깔려 버렸어요. 저는 병원에서 부모님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과도 같단다. 그분을 껴안아 드리려고 해 보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저의 오른쪽 다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 공동체 젊은이들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른 사람들이 보여 준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현재 임시 의족을 사용하고 있고, 몇 달 후에는 영구 의족도 받을 예정이에요. 집에서의 생활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일도 돕고, 가족 곁에서 지내고 있어요. 심지어 학교도 매우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족들과 저의 친구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 등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제가 평온하게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레티치아 마그리
포콜라레운동 국제본부「생활말씀」편집위원

1.C. 루빅, 2005 년 3 월 생활말씀, 마찬가지로 단행본 『생활말씀 Parole di Vita』, 파비오 차르디 엮음. (끼아라 루빅 전집 제 5 권), 치타누오바 출판사, 로마, 2017 년, 이태리어 원본 745-746 쪽 참조.

Focolare contacts in Japan E-mail: tokyofocfem@gmail.com
www.focolare.org/japan 東京：03-3330-5619/03-5370-6424
www.focolare.or.kr 長崎：095-849-3812
포콜라레(마리아사업회) 도서출판벽난로인터넷서점
http://www.focobooks.com
서울 본부 : 여 (04607) 서울 중구 다산로 21 길 27-9 (신당동) /전화 02-2232-2460
서울 본부 : 남 (04002)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9-9 (서교동) /전화 02-332-1010